

2026년 10월 16일(금) 구역예배 자료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사도행전 5장 33~42절

- (1)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가 454장을 부릅니다. (2) 구역 식구 중 한 분이 기도합니다.
(3) 사도행전 5장 33~42절(신195)을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4) 기도제목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5) 찬송가 70장을 부르고, 봉헌한 이후 봉헌기도 합니다. (6)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구역예배를 마칩니다.

<인터넷 참조> <http://www.pckyesan.or.kr>으로 접속, 10월 11일자 주일예배 말씀

<생각하기>

옛날에는, 한 마을에,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마을 사람들이,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현자’를 사전에서는, ‘어질고 총명하여, 성인에 다음가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갈등과 분쟁의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존경하고 신뢰하는, 현자가 알려주는 지혜로운 조언을 듣고, 자신들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설교의 요약>

오늘 본문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심문을 받던 사도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법에 의해 도움을 받고, 놓임을 받게 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우리가 너희에게,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금하였는데, 왜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냐고, 사도들을 추궁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예수를 전파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공회원들은,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한 바리새인으로부터, 뜻밖의 도움이 옵니다. 공회원 중 한 사람이었던,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죽이려는 공회원들을, 만류하고 나선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을 잠시 밖으로 내보낸 후, 가말리엘은 공회원들에게, 자신의 논증을 펼칩니다. 가말리엘은 공회원들에게, 사도들을 어떻게 다룰지,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상기시키며,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가말리엘은, 드다, 갈릴리의 유다, 이렇게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로마 제국에 반대하여, 민족적인 반란을 주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드다와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활동할 때, 한동안 사람들이 그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로마 당국에 의해 죽임을 당하자, 추종하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그들의 주장도 사라졌습니다.

가말리엘은, 사도들에게 간섭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사도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만약 사도들의 계획이나 활동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면, 그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고, 오히려 공회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사도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게, 가말리엘의 주장이었습니다.

공회원들은, 이러한 가말리엘의 주장이 옳다고 여겨, 사도들을 죽이는 대신,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금한 후에, 놓아주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가말리엘의 말과 태도에서,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가말리엘의 조용하고 침착한 논리를 통해, 매사에 이성을 잃지 말고 신중해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사도들을 심문하기 위해, 산헤드린 공회와 원로들을 모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는, 사도들을 따르는 백성들을 보면서, 사도들에 대한 시기심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명을 어긴 사도들에 대한 분노에 사로잡혀 흥분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말리엘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정을 찾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흥분, 시기심, 피해의식, 분기탱천, 이러한 마음으로,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2장 2절, 5절, 6절은, 그리스도인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신중해야 한다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가말리엘을 통해,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가운데 풀어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밥 먹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세와 명예를 얻고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당면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은 달랐습니다. 가말리엘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건을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나와 공회가 결정하고 행동하려는 것이, 혹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녀야 할 모습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나 사건을 당할 때, 그 문제나 사건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와 사건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가말리엘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은, 얼마든지,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과 사람으로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사도들을 심문하기 위해,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다는 사실은, 얼핏 보면,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모두가, 사도들의 반대자들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도들도, 공회원들 중에, 자신들을 도와줄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회원이었던 가말리엘이, 사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로 작정하시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예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누기>

1. 예상치 못한 사람의 도움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고백하게 된 사건이 있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흥분과 성급함에 사로잡혀,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행동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신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가운데, 매사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구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라는, 가장 귀한 인생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외롭다고 느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신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고와 섬김과 희생의 흔적이 없으면서,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다가 당하는 어려움을, 영광의 상처와 흔적으로 여기며, 고상한 기쁨을 누리는, 예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